

서해선 전동차 20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

- 안전 문제 부품 전량 교체 완료... 출퇴근 혼잡 및 이용 불편 완화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정상화한다.
 -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일부 구간 감축 운행과 서행 운행이 종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2일 발생한 서해선 전동차 운행장애*와 관련하여 동일 차종 10편성의 중간연결기를 모두 교체하였다.
 - * 열차와 열차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연결기 결함으로 운행 준비 중인 열차의 운행을 중단
 - 교체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 강도와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,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등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다.
 - 또한, 제품 설계·제작과 철도용품 형식승인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여, 당초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교체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4월 16일 전량 교체를 완료하였다.
- 교체 기간 동안에는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동일 차종 열차에 안전요원 동승, 객차 간 통로문 폐쇄, 일부 취약구간 속도 제한(시속 40km 이하)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하였다.
 - 아울러 자갈도상 구간으로 진동 영향이 큰 ‘일산~대곡’ 구간(4개역, 6.9km)은 운행 횟수를 하루 62회에서 14회로 감축하여 운행하였다.

- 이번 정상화로 ‘일산-대곡’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14회에서 62회로 회복되고, ‘대곡-초지’ 구간(14개역, 37.3km) 운행 시간은 58분에서 51분으로 약 7분 단축된다.
- 또한, 불규칙했던 배차 간격도 일정해져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 열차 내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“이번 서해선 전동차 연결기 전량 교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”라며,
 - “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차량 부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차량 정비·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영안전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 (044-201-4611)
		담당자	사무관	권택규 (044-201-4613)
		담당자	주무관	곽태훈 (044-201-4610)
<운영계획>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임상준 (044-201-4631)
		담당자	주무관	이은정 (044-201-3974)
<공동>	국가철도공단 모빌리티기술처	책임자	처 장	정영수 (042-608-3321)
		담당자	부 장	김종욱 (042-607-4262)
		담당자	차 장	전민철 (042-607-4268)
<공동>	한국철도공사 전동차량처 광역마케팅처	책임자	처 장	박수명 (042-615-4276)
		담당자	부 장	박승주 (042-615-4278)
		담당자	부 장	이창훈 (02-3149-2068)